

# “고향 프로젝트 늘 관심...디자인에 광주 담겠다”

‘요 문화의 전당’ 내부설계 광주출신 양성구 ‘에테르쉽’ 대표

## 뉴욕서 건축사무소 운영...문화전당 젊은 ‘건축가 5인’ 선정

“광주는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도시와 비교해 위치 상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직 문화프로그램만 보고 광주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도시보다 더 명쾌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2014년 완공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부설계를 맡은 양성구(36) ‘에테르쉽’(Ether Ship)건축사무소 대표는 ‘문화수도 광주’의 성공을 기원하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지난 3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부설계를 맡은 ‘젊은 건축가 5인’이 선정됐다. 이중 유일한 광주출신으로 문화전당 내부설계에 관한 주제 발표 및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4일 광주를 찾은 양대표는 문화전당사업 성공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광주에서 태어나 무진중, 서강

고,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미국 버드대에서 건축설계 석사(Master of Architectural)를 받은 그는 올해 뉴욕에 자신의 건축사무소 에테르쉽을 열었다.

양성구 대표는 “미국 유학시절 학생신분이라 문화전당사업 국제공모전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선정돼 영광”이라며 “외부에 있는 지상 공원에서 평온함, 구도형 건물에서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당 내부에서는 다양한 전시회와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시민을 위한 휴식과 즐거움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8년간 타국 생활을 하면서 광주는 언제나 관심 있는 주제였다. 자신이 태어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

나고 건축가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그는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에서 전시회를 기획해서 진행하거나, 한국에서 초청돼 작품을 출품해왔다. 주택 설계의뢰부터 대전역주변 도시개발까지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9년 광주비엔날레에서 해외작가로서 초청됐을 때는 ‘휴식-소쇄원’이란 주제에 맞춰 자신이 어릴 적 즐겨 찾던 소쇄원을 현대적 건축공간으로 재해석했다.

2003년 부산 광안리대교 주변 국제공모전 대상을 비롯한 유네스코가 후원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06 세계건축가협회 국제공모전’에서 한국인 최초 대상 수상, 2006년 산업자원부 선정 차세대 디자인 리더 선정, 2007년 보스턴 건축가협회가 개최한 국제 안빌트디자인어워드(BSA Unbuilt Architecture Design Award)에서 대상 수상, 2009년 뉴욕건축연맹이 선정하는 ‘뉴욕젊은건축가상’(New York Young Architects Awards)에 한국인 단독으로 최초 수상까지 그가 가진 경력은 화려하다. 양성구 대표는 우리나라 건축이 평범하고 복제된 건물이 넘쳐나

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건축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혁신도 쉽지 않다”며 “문화중심도시를 내세운 광주에 걸맞게 건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신뢰하고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보면 김치찌개 향기에 몸이 먼저 반응하듯 자동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그는 아시아문화전당 완공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복안을 드러냈다.

“비엔날레 등 특정 기간 이외에 광주에서 어떤 예술, 문화활동이 열리고 있는지 외국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광주는 ‘문화도시’가 아니라 ‘예술을 전시하는 도시’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광주공원이거나 북동성당 등 문화전당 주변 구도심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하며 전시판매하면서 뉴욕의 소호지역처럼 문화생산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전남대-우정사업정보센터 공동발전 협약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 앞줄 왼쪽)와 우정사업정보센터(센터장 노재민)는 최근 대학 본부 접견실에서 상호 교류 및 공동의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금호터미널, 상촌종합사회복지회관 위문



금호터미널 임직원들은 7일 상촌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치약 400세트를 전달했다. (금호터미널 제공)

## 바르게살기광주서구협,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서구협의회(회장 김기동)는 최근 장성 축령산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문화탐방을 펼쳤다. 홍길동 생가 방문, 편백나무길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양세열기자 hot@

# 지역발전 공헌 ‘2013 광주시민대상’

광주시는 7일 시민대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부문에서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공헌한 ‘2013년도 광주광역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사회봉사 부문에 선정된 양철호(57)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의 전화 광주지회를 설립, 노인의 권익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학술대상 부문의 최한철(52) 조선대 치의학과 교수는 치과와 정형외과 생체 재료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인정받았다. 예술대상 부문의 최석현(55) 최씨공방 대표는 나전칠기 명인으로 빛과공예창작품을 조성하고 공예산업 대중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육대상 부문의 김성은(38) 광주여대 양궁부 감독은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등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게 한 공로가 인정됐다. 지역경제진흥대상 부문의 양진석(53) ㈜호원 대표이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한편, 1987년 도입된 광주시민대상은 지난해까지 110명의 시민과 7개 단체가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는 오는 21일 제48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만주 유적지 돌며 독립군 정신 계승”

### 16일까지 ‘청소년 캠프’ 참가자 모집

푸른산(대표 박찬호)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산악연맹(회장 최경주)과 중국연변등산협회(회장 조운철)가 공동 후원하는 “2013 청소년 독립군 산악캠프”가 오는 8월9일부터 15일까지 6박7일 동안 중국 동북지역(만주)에서 개최된다.

참가대상은 광주·전남 거주 14~18세 중·고등학생 20명이다. 참가자들은 양백등반과 야간산행, 비박 체험과 함께 독립군의 경로를 따라 산행하며 유적지를 답사한다. 또 백두산 등반과 연변 독립운동 유적지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우리 고장 산악인들의 애국심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비는 중국 현지 답사와 사진, 사후 워크숍 등 4회의 행사를 포함해 130만 원이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푸른산 캠프 담당자 이메일(rascalchoi@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6312-8850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치매 걸렸어도 시어머니는 내 부모”

## 5년째 병수발 강진군 성진면 박은옥씨 ‘국민훈장 동백장’

“아직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게 내 부모를 병(치매) 들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나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효행이 알려져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게 된 강진군 성진면 박은옥(53)씨는 7일 “주변에서 시어머니를 요양시설로 보내라고 권유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씨는 훗날 18살 소녀때 23살 남편과 결혼해 시집살이를 시작했다. 당시 시집에는 시중조 할머니, 시조부도, 시부모까지 4대가 한 집에서 생활했고, 집안 어른들의 모든 수발은 박씨가 맡았다. 여기에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막내를 비롯한 4명의 시동생과 3명의 시누이도 정성껏 뒷바라지해 출가시켰다.

이제 강진 시대에 남은 식구로는 남편과 시어머니 뿐이지만, 박씨는 5년전 치매 판정을 받고

거동이 어려운 시어머니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고 있다. 자신도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권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시어머니 간호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박씨는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일에 대해 “어머니와 35년동안 함께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다”며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씨는 이처럼 시어머니 수발에 약 9만㎡ 규모의 농사까지 짓는 와중에도, 농한기엔 어김없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동네 어르신들께도 점심 식사를 손수 대접해 ‘동네 대표 며느리’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한편, 8일 어버이날에는 박씨를 비롯해 155명의 ‘효행자’와 ‘장한어머니’들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훈장·포장·표창을 받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 조선대, 법사랑 서포터즈 최우수상

조선대 법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오로라팀(팀장 김기현 4년)이 최근 정부와 천천사 대강당에서 법사랑 서포터즈 제 5기 활동보고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로라팀은 지난 1년간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전개 및 UCC 제작, 스물손 준수 UCC 제작, 수피어중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SNS폭력에 관한 강의,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등 ‘법사랑 서포터즈’ 활동을 펼친 공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채희정기자 chae@

## 신문협, NIE 워크북 무료 배포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신문활용교육(NIE) 워크북 ‘패스포트’를 무료 배포한다.

신문협회는 7일부터 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패스포트 과제를 수행할 학생 2만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학생 1명 당 패스포트 1권씩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패스포트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 제작됐다. 배포부수도 초등과 중·고등 각 1만부씩 모두 2만 부로 늘었다. 주제는 초등은 ‘신문 속 신나는 스포츠세상’, 중·고등은 ‘신문으로 떠나는 문화여행’이다.

학생들은 여권 모양을 본 따 만든 워크북 ‘패스포트’에 제시된 18개의 활동과제를 신문 지면이나 신문사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 수행한 후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확인 도장(일반 여권의 입국심사 스탬프에 해당)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공모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전주제이퍼의 후원으로 실시된다.

/양세열기자 hot@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 ▲이기춘·이희숙씨 아들 유석군 김용기(광주일보 중부취재본부장)·한영숙씨 딸 민희양=11일(토) 오후 3시 서울 육군사관학교 육사회관 예식홀.
- ▲박현순·오순임씨 장남 상현군 김성영(광주시 교육청기획관)·신명숙씨 장녀 다현양=11일(토) 오전 11시 50분 광주상록교회 웨딩홀 무궁화홀.
- ▲손일모·고영순씨 삼남 범주(한국세정신문 광주주재 기자)군 황송의·치정애씨 장녀 진양=11일(토) 낮 12시 20분 궁전웨딩컨벤션 2층(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암리 125-1)
- ▲박순서(전 서광주세무서장)·신계순씨 차남 제연군 임영삼·오정희씨 장녀 선화양=11일(토) 낮 12시 광주 피앤제이웨딩홀 1층 프린세스홀.
- ▲이영갑·박성순씨 장남 승준군 이형신·문명옥씨 차녀 윤미양=11일(토) 오후 1시 화순교회 3층대강당.
- ▲윤목현(전 무등일보 부사장)·한

- 광숙씨 장남 태희(유한김벌리)군 안병호(개인사업)·김기연씨 차녀 미혜양=11일(토) 오후 1시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 4층 그랜드볼룸.
  - ▲유광희씨 차남 윤길성군 심우정(세무사)·김지현씨 장녀 명진양=11일(토) 오후 1시 광주 아름다운컨벤션 배트르사채홀.
  - ▲고영준(장흥교씨의열공 장령중)·이숙재씨 장남 연호군 이영진·김금순씨 장녀 주현양=11일(토) 오후 2시 30분 서울목동 웨딩의 전당 1층 프라이홀.
  - ▲유복주씨 장남 정호기군 임명규(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이재숙씨 장녀 혜민양=19일(일) 오후 3시 더스타웨딩홀 14층 스타홀, 피로연=10일(금) 오전 11시~오후 2시 비발디파크 골프장.
- 동창동문회**
- ▲2013년 광주인성과 총동문회(회장 선정민) 인성락락 가족한마당=12

- 일(일) 오전 9시 모교 대운동장(우천시 체육관) 062-433-3228.
- 종친회**
- ▲(사)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북구분원 정기총회(분원장 이근중) 개최안내=11일(토) 오전 11시 광주·전남도지원 회의실 3층 010-4626-1165.
-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 ▲친환경농업사업단은 고령령, 저학령, 무기능자 중에서 농사에 경험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채소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전통 영농인사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령고령 및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급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모집**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언어발달 평가(표준화 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발·모듬 수업 : 주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 ▲동구정신보건센터 주간지 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서비스 제공 062-233-0468.
- ▲(사)복색전국연합 전남지부=환경정화사업에 동참할 참신한 시·군지회사 모집 061-272-2207.
- ▲탁주·약주·증류주 등 전통주 제조업 수강생=조선대 평생교육원(월요일 오후 7~9시), 호남대 평생교육원(수요일 오전 10~12시, 오후 7~9시). 조선대 062-230-7700, 호남대 062-370-8211.
- ▲나주 아동기축삼센터 대상자=미술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 ▲길라잡이 프로그램=(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심리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 ▲섬소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고령, 노인실질형(치매·중증·노환), 취약, 청소년, 신체활동장애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 부음**
- ▲박생호씨 별세 준영(환경부공무

- 원)·혜진·정현씨 부친상 황윤애(담양군청)씨 시부상 김명철(서울부지성형외과)·김지호(삼육초등학교)씨 빙부상=발인 9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 ▲심윤식씨 별세 훈·다희씨 부친상=발인 8일(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 ▲강유화씨 별세 김광용·광수·명숙씨 모친상=발인 8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b>故 伯 父 翁(여/70세)</b> 子/婦: 박형식/양 희, 형찬/박연희, 형일/한지희 女/婿: 박수경/김성, 정희/김석우 •호실:402호 •장지: 영락공원	<b>故 正 親 翁(여/79세)</b> 子/婦: 문규복/박연희, 찬민 女/婿: 문연삼/김수성, 귀숙/박순호 •호실:301호 •장지: 영락공원
<b>故 伯 母 翁(남/65세)</b> 子/婦: 박찬삼/김인영, 찬익/윤경숙 未成人: 예미숙 •호실:101호 •장지: 영락공원	<b>故 伯 母 翁(남/58세)</b> 兄弟: 배진재/전영진 •호실:102호 •장지: 영락공원

孝 金 浩 張 禮 式 堂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